

 보건복지부		<h1>보 도 자 료</h1> <h2>2월 28일(목) 위원회 종료 후</h2>		
배 포 일		2019. 2. 28. / (총 6매)		
보육정책과 (시행계획 총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과 장	현수엽	전 화	044-202-3540
	담당자	황호평		044-202-3541
		김정열		044-202-3545
		황신자		044-202-3556
보육사업기획과 (보육료, 체계개편)	과 장	이윤신		044-202-3560
	담당자	민차영		044-202-3562
보육기반과 (부정수급, 안전 등)	과 장	김우중		044-202-3580
	담당자	임세희		044-202-3581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 확대하여 보육의 질 높인다!

-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보조교사 1만 5000명 추가 투입 등 -
- '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19년도 시행계획 심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개최하여,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18~'22년)의 1년차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2년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17.12월 말 수립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①보육의 공공성 강화, ②보육 체계 개편, ③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④부모 양육지원 확대의 4개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①보육의 공공성 강화 분야에서는 그간 국공립 어린이집 574개소 확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 18.12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 도입(71개소 선정) 등 공공보육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 직장 어린이집도 58개소가 새로 설치되는 등 설치의무 이행률이 5.2%p 상승하였고, 보육수요는 있으나 개별 사업장에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공동 직장어린이집도 15개 선정·지원(고용노동부 소관)되었다.
- 공공형 어린이집도 238개소를 새로 선정하여 총 2,356개('18.12월 기준)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 당초 '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려던 목표를 1년 앞당긴 '21년까지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올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연차별 확충 목표를 550개(기존 450개)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임차 국공립 시설을 100개 이상 선정하기로 했다.
-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위탁보육의 인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 (현행 기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 ** (예시) 보육수요가 적은 경우 등
-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모든 공공형 어린이집을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토록하고, 급식·주방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 * 열린 어린이집 : 아동학대 예방의 일환으로 보육실 공간개방,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가 보장된 어린이집
- ②「보육 체계 개편」 분야에서는 그간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연장보육 내실화 및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 지원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적정 보육료 산출 및 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 재계측을 실시하였다.

- 3~5세 유아에 적용되는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개선방안이 검토되었으며, 누리보육료 동결에 따른 유아의 보육 비용 보전을 위해 국회에서 **누리운영비 인상**(713억 원 '19년 적용) 등이 이뤄졌다.
- 올해에는 '18년에 산출된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하여 **내년도 보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개정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시범적용 등 후속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3~5세 누리과정 개정 방향에 맞춰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 ③「**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분야에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보육환경 개선, 상시적 품질관리 등 다양한 세부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 '18년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추가 지원**(2만 1000명 → 2만 7000명; +6,000명)하는 한편, **탄력편성 제도를 개선**하여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반별 정원을 일부 초과하는 반 편성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다.
- * 탄력편성 어린이집 55% 감소(8,747→3,923개소), 탄력편성 반 68% 감소 (1만 7740 → 5,638개 반), 탄력편성반 아동 66% 감소(2만 3210→7,871명)
-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18.10)하여 2,064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차점검 방식을 도입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및 보육료 유용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 중이다.
-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였고,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부모의 일상적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어린이집 대상도 대폭 확대하였다.

- * 공기청정기 53,479대 설치비 지원,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25,022대 설치비 지원
- * 열린어린이집 선정 현황 ('17) 1,857개소 → ('18) 3,404개소

□ 올해에도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 5000명을 추가 배치하여 배치인력을 총 4만 명까지 확대하고,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국회 예산편성에 따라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도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된다.

- 작년 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 평가제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평가 지표 개편 등 평가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 아울러,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 경력단절 후 보육 현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보육교사에 대해 사전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학과 중심의 보육교사 양성 대책과 보수교육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④「부모 양육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정양육부모의 긴급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이용건수 및 이용시간이 전년 대비 각각 15.2%, 19.2% 증가하였다.

* 부모교육 6,973회 실시, 약 12만 4000명 참여, 부모교육 프로그램 2종 개발(영유아 발달 이해, 부모 양육태도 점검) 및 온라인 부모 교육(클로버 부모교육'멋진 아이') 개발·배포

** 시간제보육 이용건수·이용시간 : ('17) 29만 건, 101만 시간 → ('18) 33만 건, 120만 시간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53개소를 확대하고 담당 교사 인건비 (2.3%)와 수당도 인상(20→30만 원)하였다.

- 올해에도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4종 추가개발 등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3개소 확충하는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을 60개소 이상 설치하여 안심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기존 1:5에서 1:3으로 축소한다.
-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육정책관은 “작년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1차년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목표 초과 달성, 보조·대체교사 지원 확대, 공기청정기 및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차점검 실시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조치들이 진행되었다”면서,
 - “오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차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교사 추가 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요

<별첨>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붙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요

□ 개요

- 역할 :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심의(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6조

영유아보육법 제6조

-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 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운영
- 위원장(복지부 차관), 부위원장(위원 중 호선) 포함 총 16명으로 구성

□ 구성현황(총 16인)

구분	이름	소속 및 직위
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당연직 위원	김상희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위촉직 위원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유희정	한국보육진흥원장
	우현경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용희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장
	오선정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안현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실장
	이완정	한국보육지원학회장
	이영옥	KDI 부연구위원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김진희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김지현	학부모
	안성숙	어린이집 원장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이사	
최영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